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192 보라색과 기호

자의식 강한 사람이 좋아하는 보라색 ... 예술가 많아

●색채와 제물

1993년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색깔로 운전자의 개성을 11가지로 정리하였다. “보라색 차를 즐겨 타는 사람은 지나치게 열정적이며, 창의적이어서 문제다.”

보라색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자칫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로 몰려 소외되곤 한다. 넘치는 정열과 표현력이 다른 사람을 압도해 지도자로 추대되는 경우도 있다.

●색채의 선호도

색 선택은 여러분의 유전자, 아동기 때의 기억들, 교육, 부모님의 믿음, 문화적 훈련, 정치적 성향, 그 밖의 여러 삶의 결과이다. 색채의 선호도는 개성, 성별, 연령, 국가, 민족,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자는 보라색이나 오렌지색 계열을 좋아한다.

사람이 모든 색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음악과 어린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상 자체를 싫어한다. 무엇보다도 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매우 싫어하거나 무관심하다.

럭키쉬(Luckiesch, M.)는 그의 저서인 시각의 과학(The Science of Seeing, D. Van Nostrand Co., Inc

., New York, 1937.)에서 미국 성인들에게 작은 색종이로 피검사자들의 기호 순서를 6가지로 분석하였다. “기호순서 중 한 가지는 중간적 빨간색, 연한 갈색, 짙은 갈색(焦茶色), 대서색(代緒色, sienna 또는 붉은 갈색을 말함), 보라색, 오렌지색들과 같은 색채를 좋아한다.”

●색채와 성격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섬세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신비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일반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수줍음이 많아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사는 유형과 두 번째는 지도자의 역할에 만족을 느껴 위엄과 품위를 지키며 사는 유형이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색에 잠기기를 좋아하며, 철학에도 관심이 많으나 삶을 헤쳐 나가는 적극성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이런 타입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뒷사람에게는 순종하면서도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자세로 군림하려는 이중 인격적인 면이 강하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과 다르다는 자의식이 강한 편이어서 남을 내려다보는 버릇이 있으며, 자신의 외형에 줄곧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감수성이 강해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보통 때는 관용을 견지하나 때에 따라 대단히 냉소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이런 타입은 예술적 재능이 두드러져 현실 세계보다는 공상의 세계에 어울리며, 행동에 일관성이 없으며, 태도가 불분명하다. 이런 사람들은 고독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물의 내용이나 이후의 진행 과정을 정확히 도식화할 수 있기 전에는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예술가인 경우가 많고, 남에게 고귀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고귀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특히 이런 타입은 늘 굳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일하지만, 고도의 감성은 다른 사람들을 신용하지 않는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활력 넘치는 광주, 변화는 시작됐다

기고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



요즘 광주를 보고 있으면 5월의 신흥처럼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변화하는 모습이 피부로 느껴진다. 이러한 변화는 광주의 미래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양분이자 토대가 될 것이다. 광주시는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했다. 대규모 신규 국가산단 유치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2009.9.) 이후 14년 만의 쾌거로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2개의 완성차 공장 자동차 72만대 생산능력(전국 2위)을 보유한 자타가 공인하는 자동차 도시이다.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등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자동차 산업 선도도시 광주」로 대전환과 도약의 기회를 광주가 잡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군공항 이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남 일부지역에서 군공항 유치를 공식화하는 등 경쟁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이전논의가 진일보하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4월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는 ‘광주군공항 특별법’은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부족분의 국고지원과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 국가 재정지원 근거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복합쇼핑몰은 해당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은 물론 국외까지 상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물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 등 공적 영역의 직접 투자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과감한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유효성과 지역발전의 기반을 보강해야 하는 도시마케팅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시의 복합쇼핑몰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한민국 꼴찌도시 광주로 위상정립은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남권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해외로는 일본·중국·동남아 등 인바운드 관광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새로운 트렌드에 걸 맞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매력과 재미요소들도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다. 광주의 밤의 얼굴도 매력적으로 변모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사업이 그것이다. 1권역(ACC)에서는 옛 전남도청 본관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2권역(금남로 일대와 G.MAP일원)에서는 미디어아트 시설물과 공연 등을 만날 수 있다. 3권역(사직공원), 4권역(양림동일원), 5권역(광주송정역)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매력적인 광주의 밤을 빛내는 겨울 빛 축제 관광상품으로 새롭게 위력을 발휘할 거라 확신한다. 더불어 광주는 ‘4계절 대표축제’가 있는 축제도시 광주로 브랜드되며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배틀라인업in광주’와 미식관광 축제

인 ‘푸드페스타’ 등 새로운 축제도 선보인다.

또 하나의 변화는 도시 디자인에서 만날 수 있다. 최근 우리시는 층수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도시재생을 기대하게 할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도시의 대표 이미지와 품격에 걸 맞는 민선 8기의 핵심사업 ‘영산강·황룡강 Y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대 마한부터 이어지는 역사·문화적 공동체의 발원지 영산강·황룡강을 따라 강의 생명과 매력, 활력이 넘치는 생태문화 관광공간이 조성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와 활력에 더하여, 공동체의 온기를 높여주는 새로운 강기정표 복지정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4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 복지분야 1호 공약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생애주기별로 지역사회에 촘촘한 통합돌봄의 서비스망으로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함이 더해지는 광주로 태어나고 있다.

지난해 광주송정역 KTX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다. 광주송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2000여명에 달한다. 결국 활력의 원천은 사람이고, 도시의 변화는 다시 활력으로 이어진다. 지금 광주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누구보다 먼저 가고 있다. 광주가 두려움 없이 도전을 시작했던 ‘내일이 기회되는 활력의 미래도시’로 기록되길 바란다. 활력 넘치는 광주,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한결 같은’ 사회의 아쉬움



취재수첩

강주비

사회부 기자
jubikang@jnilbo.com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소송이 재개되기까지 5년이 걸렸다.

광주 뇌 병변 장애인 5명은 지난 2017년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장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시와 금호고속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피고의 증거 제출 미흡·대법원 유사 사건 계류 등의 이유로 재판이 중단됐다.

그러던 지난 16일 5년 만에 소송이 재개됐다.

당일 광주지방법원 앞에는 수십 명의 장애인들과 연대자들이 모여 들었다. 5년 만에 다시 재판정에 들어선 이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결의에 차 있었다.

원고 측은 이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듯 보였다.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충남고속, 한양고속 등의 사실조회요청회신 자료를 제출하는 등 끊임없이 휠체어 리

프트 설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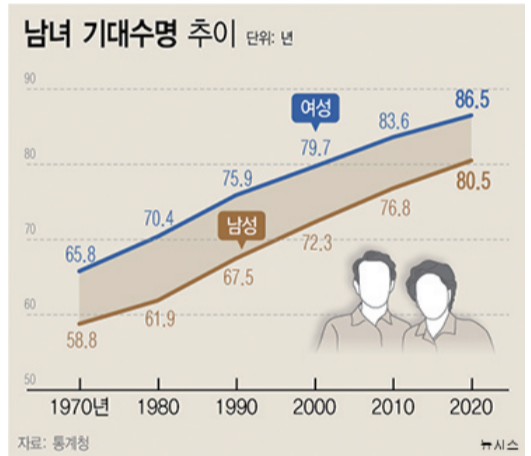
이에 반해 피고 측 대리인은 5년 전 재판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주장들을 펼쳤다. 금호고속은 여전히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재무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고, 광주시는 “광주에 금호고속 본사와 관련 사업자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인 만큼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측의 ‘도돌이표’ 주장에 힘이 쏠리는 순간이었다. 옆에 있던 다른 방청인들 또한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 측에 재무 자료를, 광주시에 시외버스 편의 증진 및 지원 계획 등의 자료를 5월18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일에 예정됐다.

재판정의 문은 열렸지만, 책임자의 입은 굳게 닫혔다. “보여주기식으로라도 1대 정도(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만한데, 재판 이후 5년 동안 그대로다”는 한 장애인의 말이 맴돈다. 여러 의미로 참 ‘한결같은’ 사회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다음 공판에 또 발 도장을 찍을 것이다. 부디 이들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2개월 뒤에는 단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간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부주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할 때

발언대

박종근
광주소방
예방안전과장



우리를 움츠리게 했던 코로나와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즘 가족, 친구, 연인 등 꽃 구경을 하기 위해 산을 찾은 산객들의 만면에는 연신 웃음꽃이 가득하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산불로 인해 뜨거운 몸살을 앓고 있다. 4월6일은 한식(寒食)이다. 우리 선조는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으로 정해 일정 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여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한식을 금연일(禁煙日), 속식(熟食), 냉절(冷節)이라고도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으로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산불은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인재이며, 산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에 걸릴 수 없을 정도로 번져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봄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쉽게 화재가 발생하고 불길이 번지기 쉬우므로 산행 시 성냥·라이터 등의 화기물물 가져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담배를 피우거나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말아야 하며,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행위나 야영은 금물이다.

둘째,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먼저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가로 산불이 번진 경우에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재난방송 등 산불 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봄 날씨와 풍경을 만끽하기도 전에 매년 들려오는 산불 소식, 이제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우리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